



2026. 6. 16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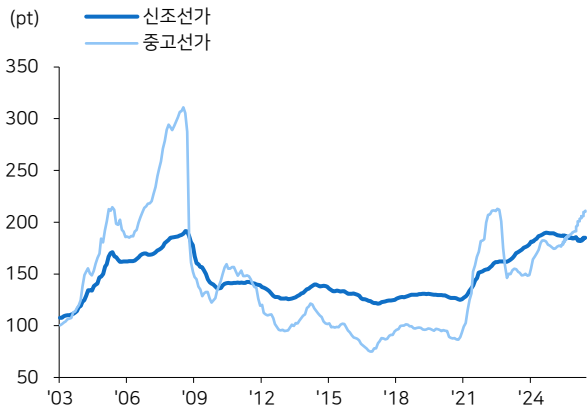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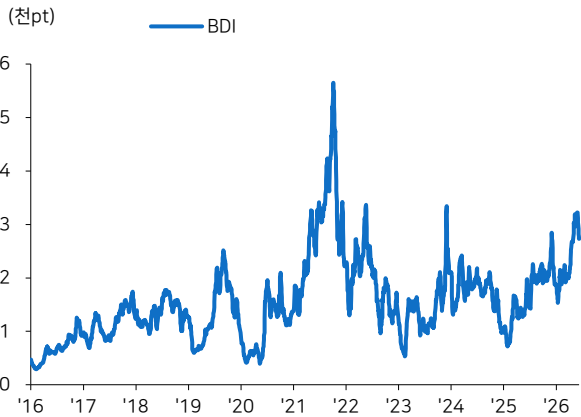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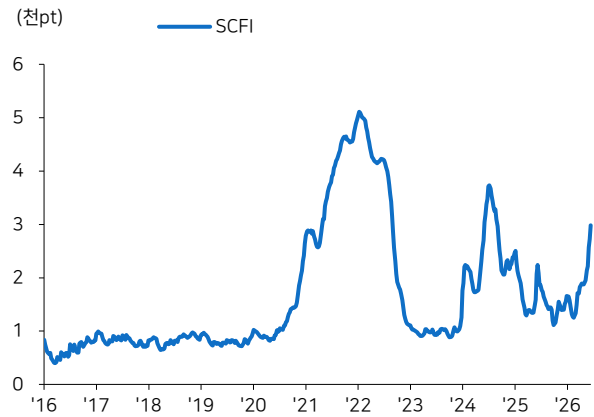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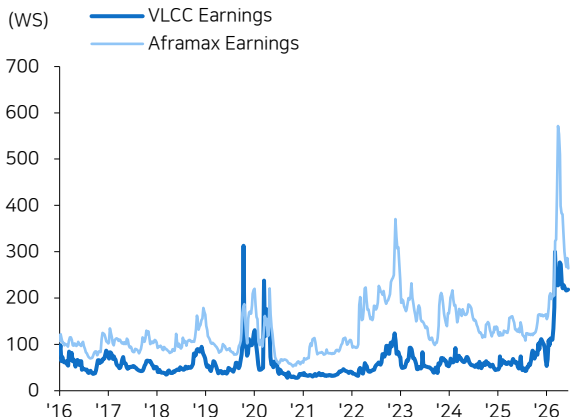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729.0p (-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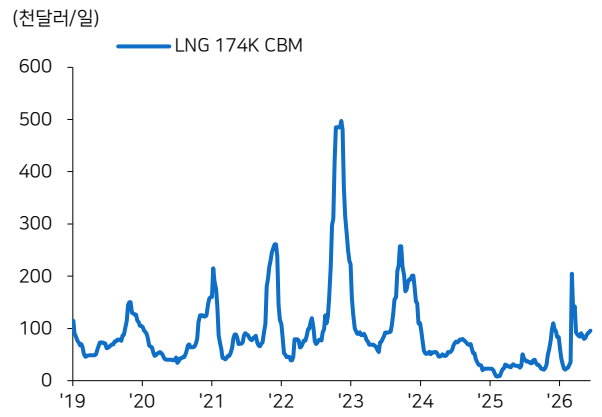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985.2(+258.7 WoW)



**VLCC Spot Rate** 218.3WS (+1.6p WoW)



**LNG Spot 운임** 96.0천달러 (+3.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이 기술 가르쳐달라" 절박한 日...40년 만에 판 뒤집혔다 (한국경제)** <https://zrr.kr/kBBGtm>

일본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산 LNG 운반선 건조 재개를 위해 한국 조선업계에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일본은 이마바리조선, 가와사키중공업, 나무라조선소를 중심으로 2035년부터 연간 3~5척의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멤브레인 방식 화물창 기술 등 핵심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해 한국 조선사와 기술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짐. 이번 움직임은 과거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조선업의 위상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조선업계의 추격을 견제하고 고객사 이탈을 막는 공동 대응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중, 그리스 선사서 MR 탱커 2척 건조 '낙점'...연간 목표 초과 달성 '청신호' (더구루)** <https://zrr.kr/r15GGL>

HD현대중공업이 최근 아시아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선대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리스 선주 Thenamaris로부터 50,000DWT급 MR탱커 2척을 추가로 발주받아 2028년 인도를 목표로 건조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henamaris는 현재 90척 이상의 선박을 운용 중인 글로벌 선사로, 과거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및 LNG선 건조를 통해 장기간 유지해온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전해짐. 이미 글로벌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6월 기준 연간 수주 목표의 62.5%를 달성하고 상선 부문에서만 목표치의 94.5%를 확보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6년 연속 연간 목표 초과 달성을 조기에 확정할 전망으로 알려짐.

**Pan Ocean inks \$542m VLCC newbuilding contract with Hanwha Ocean (TradeWinds)** <https://zrr.kr/6XdA7d>

한화오션이 아시아 선사와 약 8,001억 원(5억 2,400만 달러) 규모의 VLCC 4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선사의 정체는 국내 팬오션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됨.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척당 가격은 약 1억 3,100만 달러 수준으로 2030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해당 선박들은 SK에너지와의 장기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건조된다고 전해짐. 당초 SK해운이 발주할 예정이었던 이 물량은 팬오션이 SK해운으로부터 기존 VLCC 10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조 계약권과 장기 용선 계약까지 함께 승계하면서 성사됐다고 알려짐.

**Metrostar comeback extends wave of Greek product tanker newbuildings (TradeWinds)** <https://zrr.kr/OugFY3>

그리스 선사 Metrostar Management가 지난 2013년 이후 13년 만에 MR탱커 시장에 복귀하며 HD현대미포와 50,000DWT급 선박 2척에 대한 신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최근 대형 원유운반선 대비 수주 잔량이 현저히 낮은 MR탱커를 확보하려는 그리스 선사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성사되었으며, 2028년 인도 예정인 해당 선박들의 척당 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약 5,35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짐. Metrostar Management는 최근 HD현대베트남 및 중국 Jiangsu New Yangzijiang 조선소로부터 인도받은 LR급 석유제품운반선들과 함께 선대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한화오션, 태국 3兆 호위함 수주 격돌 (서울경제 TV)** <https://zrr.kr/IT6ELD>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태국 해군이 발주하는 8,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호위함 도입 사업을 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사업은 향후 추가 도입을 통해 전체 시장 규모가 최대 3조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양사가 현지화 정책 및 기술 이전 역량을 앞세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출형 모델을, 한화오션은 과거 태국 해군에 함정을 인도하며 쌓은 신뢰와 장기적인 기술 파트너십 로드맵을 각각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며 이달 중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전망으로 알려짐.

**"한화오션, 하청노조 교섭 응해야"...중노위 재심도 '인정' (뉴시스)** <https://zrr.kr/W27Nmk>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에서 원청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됨.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이 작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등을 직접 통제하고 있어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절차적 시정 명령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청의 교섭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알려짐. 한편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 10곳이 제기한 유사 사건에 대해 인정 결정을 내리면서, 금속노동조합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을 향해 즉각적인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나선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